

회의자료

---

# 제1차 「FTA활용지원대책반」 회의

---

2012. 11. 2

주태국대사관

## 1. 배경

- 한·미, 한·EU 발효를 계기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로드맵의 기초 단계가 완성
- 한·중 FTA 등 지속적인 FTA 네트워크 확대와 더불어 기체결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이행체계 구축, 강화가 주요당면 과제로 대두
  - 2012.11월까지 8개 FTA 46개국(교역대비 34%)과의 FTA 체결
  - 한·아세안 FTA 수출 활용율이 33.1%로서 여타 FTA 보다 저조

<수출입물품의 FTA 활용률>

구분	칠레	아세안	인도	EU	페루	미
수출	85.5%	33.1%	35.8%	78.4%	61.3%	60.6%
수입	95.8%	73.8%	53.6%	59.4%	52.6%	55.5%

-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재외공관 활동강화 지시(자유무역협정 이행과-S1464)
  - 주태국대사관을 포함하여 FTA 중점 활용공관내 「FTA활용 지원대책반」 설치
- 관계부처 중심의 국내적인 FTA 활용지원 체제에 상응하여 해외공관을 중심으로 하는 FTA 활용 해외 지원체제 구축 필요
- 주태국대사관내 「FTA활용지원대책반」 구성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한-태 교역에 있어서의 FTA 활용 지원방안 논의

## 2. 주태국 「FTA활용지원대책반」 구성 및 운영

### 가. 구성

□ 반장 : 박원섭 공사

□ 반원

- 유관기관 : 이만재(한태상공회의소 회장), 권오석(Kotra 방콕 무역관장), 최창규(재태 한국물류사협의회 회장), 김석주(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 태국사무소장)
- 대사관 : 신성철 참사관, 유영한 관세관(간사), 진종욱 상무관, 홍성기 재경관

### 나. 임무

□ 정부간 FTA 이행 협의 지원

- 주재국 FTA이행 관장 주무당국과의 상시적 접촉선 가동
- 정부간 FTA 이행 협의 및 기체결 FTA의 upgrade 지원

□ 주재국 정부 이행동향 모니터링·보고

- FTA이행 관련 주재국 법·제도 동향(관세법 등) 상시 파악  
- 주요 수출입 통관절차/법령, FTA 양허세율표 등

□ 우리기업의 FTA활용률 제고를 위한 현지 지원 강화

- 한국 수출입기업이나 현지기업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·보고 및 해소 노력
- 관세·원산지 분야 전문가 초청 설명회 개최 등 FTA 홍보
-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분야 및 조기 자유화 필요품목 지속 발굴·보고
-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주재국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독려

### 3. 한-태 교역 및 FTA 현황

#### 가. 교역현황

- '09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감소한 이후 한-아세안 FTA 발효('10.1)와 함께 '10년 106억불(전년대비 36.8% 증가)로 회복
  - 지난해에는 139억불(수출 85억불, 수입 54억불)로 역대 최고 교역액을 달성
  - 다만, 금년은 9월까지 교역규모가 100억불로 전년동기대비 약 7% 감소

#### < 연도별 對 태국 수출입 현황 >

(단위 : 백만불, %)

구분	2008	2009	2010	2011	2012.9
총교역	10,060 (21.8)	7,766 (-22.9)	10,627 (36.8)	13,871 (30.5)	10,005 (-7.0)
수출	5,779 (28.8)	4,528 (-21.6)	6,459 (42.7)	8,458 (30.9)	5,975 (-8.9)
수입	4,281 (13.6)	3,238 (-24.4)	4,168 (28.7)	5,413 (29.9)	4,030 (-5.0)
무역수지	1,497	1,289	2,290	3,045	1,945

#### □ 주요 수출입품목('11년 기준)

(단위 : 백만불, %)

수출				수입			
순위	품목	금액	증감	순위	품목	금액	증감
총계		8,458	31.0	총계		5,413	29.9
1	철강관	1,402	52.5	1	임산부산물	926	69.3
2	레일 및 철구조물	788	909.0	2	반도체	609	-5.9
3	금은 및 백금	389	29.1	3	기호식품	418	272.4
4	합성수지	349	8.1	4	원유	215	-3.1
5	자동차부품	267	79.0	5	컴퓨터	213	-28.5
6	반도체	261	33.8	6	유선통신기기	183	5.5
7	합성고무	209	135.6	7	무선통신기기	138	-2.2
8	기타석유화학제품	190	8.0	8	합성수지	130	101.3
9	기초유분	169	32.8	9	곡실류	129	75.4
10	알루미늄	159	50.8	10	기타석유화학제품	125	111.7

## 나. FTA 현황

### □ 태국과의 한-아세안 FTA 추진경과

- 한-아세안 FTA는 '07.6월부터 발효
- 태국은 '09.2월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 가입의정서에 서명하여 한-아세안 FTA에 가장 늦게 가입
- '10.1.1일부터 한태간 한-아세안 FTA 발효 서명

### □ 상품협정 주요내용

- 한-아세안 FTA 상품협정상 기존의 양허 내용을 태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태국에 대해 한-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modality<sup>1)</sup>를 일부 이탈한 상품양허를 허용
- 제2일반품목군 신설, 초민감품목 선정기준 변형 등
- 한국의 관세양허계획
- 전체 양허대상품목을 일반품목, 일반민감품목, 초민감품목으로 구별하여 연차적 관세인하

#### <한국의 관세양허계획>

구 분	일반품목군 (Normal Track)	민감품목군(Sensitive Track)	
		일반민감품목 (Sensitive List)	초민감품목 (Highly Sensitive List)
품목수기준	90% 이상	6~7%	HS 6단위 200개 또는 각국 최종단위 3% 이하
수입액기준	90% 이상	7%	3% 이하
자유화목표	2010년까지 완전관세철폐	2016년까지 0~5%로 관세감축	저율관세수입물량(TRQ)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인정

- 태국의 관세양허계획
- 우리와 달리 일반품목군을 다시 1군과 2군으로 구분하여 양허 계획을 수립

1) 일반협정은 품목별 양허스케줄을 정하나 모델리티는 일정기준에 따라 품목을 일반, 민감, 초민감으로 자율배정 방식

### <태국의 관세양허계획>

구분	일반품목군(NR)		민감품목군(ST)	
	1군	2군	일반	초민감
품목수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~ 2010 4,916(89.14%)</li> <li>■ ~ 2012 165(2.99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~ 2016 50(0.91%)</li> <li>■ ~ 2017 78(1.41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~ 2016 175(3.17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품목수 : 131</li> <li>■ 수입액 : 3.74%</li> <li>A(6) 2016까지 50% ↓</li> <li>B(37) 2016까지 50%이상 인하</li> <li>C(6) 2016까지 50%이상 인하</li> <li>D(51) 최소수입물량 적용</li> <li>E(31) 관세양허 제외</li> </ul>
수입액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~ 2010 81.45%</li> <li>■ ~ 2012 1.67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~ 2016 3.24%</li> <li>■ ~ 2017 4.67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~ 2016 5.20%</li> </ul>	
자유화 목표	2017까지 품목수 5,209(94.45%) 수입액 91%가 관세철폐		2016까지 관세 5%이하로 감축	

○ 우리의 주요 관심품목 태국 양허 현황

- 기계/화학제품 : 2010년까지 관세 철폐
- 화장품 : 2017년까지 관세 철폐
- 철강 : 일-태 EPA 일정에 준하여 관세 감축
- 자동차 : 2016년까지 현행세율의 20% 감축(⇒ 감축폭이 작아  
일본 자동차와의 경쟁력 확보에 미흡)
- 담배(관세율 72%), 짜프형 자동차(80%) : 양허대상에서 제외
- 생사 : 2012년까지 4.44%, 2016년에는 0%

○ FTA 활용률\* 현황

-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한-아세안 FTA 활용률은 '10년에 비해'  
11년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타 FTA에 비해 낮은 수준
  - 29.0%('10) → 33.1%('11)
- 한때간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한-아세안 FTA 활용률은 '11년  
16.5%로서 낮은 수준

\* 실질 FTA 활용률 개념으로서 특혜관세 수출액/특혜관세 대상품목 수출액

- 활용률 저조원인('08년 對 아세안 수출기업 설문조사)
  - 이미 무관세이거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간 차이가 적어 실익이 없음
  - FTA 활용방법(관세, 원산지정보 등)을 잘 모름
  -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바이어의 요청이 없음
  - FTA 활용을 위한 구비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음
  
- 그간의 태국관련 FTA 애로사항 접수내용 분석
  - 한국 발급 C/O 인장을 스탬프형태로 날인하지 않아 거부
  - 전자인장을 거부하고 스탬프형태의 인장을 요청
  - 제출기한 만료를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수리 거부
  - 잘못된 HS 번호로 C/O 발급
  - HS2007버전과 HS2012버전과의 상이에 따른 문제
  - 서식에는 수출자로 되어있으나 생산자 서명 기재로 통관애로
  - C/O 서식으로 생산자정보 노출되는 것 우려
  - 기 발급한 C/O의 품목번호 수정발급 애로
  - 원산지증명서가 한 장으로 되지 않고 첨부하여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불인정
  
- ⇒ 태국세관에서 경미한 하자도 문제 삼거나 협정을 잘못해석, 엄격히 적용하여 통관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

※ FTA 관련 주요 현안 진행현황

- 태국의 한-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상호대응세율 이행 지연
  - 우리측 민감품목중 실행세율을 10% 이하로 인하한 품목(20개)에 대해 태국측의 상호대응세율 미적용 사실 확인('12.7)
  - 이에 대해 태국에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
- FTA 해외설명회
  - 당초 외교부 등 주관으로 11월 태국 현지설명회를 계획했으나 기재부 FTA 간담회(11.29)와 중복 문제로 본부에서 검토중

## 4. FTA 활용률 제고 지원방안

### 가. 기본방향

-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 마련
- 대책반원 및 유관기관별 합리적 업무수행 및 역할분담 정립
- 상시적인 애로사항 접수, 해결 노력과 함께 「FTA 활용지원 대책반」 회의를 분기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진행사항 점검

### 나. 지원방안

#### 정부간 이행 협의 지원

- 현재 진행중인 아국과 태국당국간 상호대응세율 이행 협의 지원활동 계속

#### 주재국 FTA 관련 법/제도 동향파악, 수출기업 정보제공 강화

- 주재국 세관당국 등과 긴밀한 정보협력관계 구축, 관련사이트 모니터링 상시화로 세율, C/O, 통관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
- 물류사협회 등도 통관업무 수행과정에서 관련정보 수집이 용이하므로 정보수집 강화 및 수집정보 공유
- 수집된 정보는 대사관, 한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게재

#### FTA 활용현황 분석 및 수출기업 애로사항 수집활동 강화

- 현지 진출기업 대상 FTA 활용실태 설문조사(상공회의소)
  - e-mail 등을 통해 FTA 활용여부, 미활용 원인, FTA 활용시 애로사항, 추가 관세양허 필요품목 등



- 업체유형별, 지역별 등으로 업체 방문, 애로사항 점검
- FTA 지원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통관자료 분석(대사관)
  - 품목별 주요 수출입업체 현황,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등

□ FTA 통관애로 해소 지원활동 수행

- 통관과정상의 애로 업체에 대해 현지 세관과의 협의 등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활동 상시수행
- 한국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통관관련 유의사항 정보 수시입수 게재
- FTA 설명회 수요 제기시 아국 전문가 초청 설명회 개최